東大新聞
發行人 黃壽永 編輯人 朴先榮 印刷人 鄭九鎬
主幹 吳洪植 編輯局長 金容詰 編輯部長 沈揆博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시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8131~9 本社直通 ㉾8577
每週 火曜日發行

科別장학금 1억5천만원 造成

회계학과등 9개學科서 推進중

목표 3億…後輩 사기앙양기여

홍보미흡으로 實績저조한 狀態

◇…… 금일아하 정책으로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장학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있다.

◇……본문 활성을 찾고있다.

◇……이날은 장학기금조성현상은 정은 수해자폭에 적은 지금액일지라도 사기앙양에 크게 기여하고있다. ……◇

◇……성이린 도움이기에 장학금지급에 불편을 갖고있는 학생을 ……◇

◇……다. 〈관련기사 7면〉

본지 취재팀의 취재에의하면 82년10월현재 본교에는 政外科 불교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등 4개대학 9개학과에서 약3억의 장학기금 모금을 추진중으로 약1억5천만원이 모금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학과장학기금이 기존 장학제도에 비하면 영세성을 면한 소규모이고 지급실적도 미미한 현편이나 기존 장학제도와는 별도로 지급되고 각 학과 발전을 위해 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어 학과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홍보미흡등의 모금상의 문제점만 해결된다면 새로운 학년장학제도로 나타날것으로 보인다.

각 학과 장학기금확보목표금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리대학과=1천5백만원(83년) ▲농과대학=1천만원(83년) ▲농과대학=1천만원(83년) ▲농과대학=1천

東國스포츠의 발돋움

사설

지난날 28일 서울운동장에 메아리친 東國人의 喊聲은 들내는 안타까운 悲聲에 잠기게 하였다。 금년도 대학야구를 總決算하는 제37회 전국대학야구수권대회에서 優勝의 문패에서 최정의 쓴맛를 든 패문이다。 이날의 敗戰은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었지만 우리는 경기에도 지고 응원에서도 졌다는 自省의 목소리가 더 높았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의 본령이 높은 지성과 학문연구및 지도자로서의 자질함양에 있다할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기반이 되는 실천의 건강과 체력없이는 높은 지성이나 우수한 기능을 연마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체육의 목적중에는 인간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의의도 있어서는 안되며 체육이 지닌 의미와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바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부정할 수 없다。 학생들의 건강에 관한 이해와 체력문제를 발전하거나 걸로해야할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東國人 모두가 현장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래의 발전상을 예측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때 학문적인 수준이나 체육부문에 이르기까지우 기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지니고 있는 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일이 急先務라고 생각된다。

학문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오츠에 있어서는 競爭에서 오는 드릴을 즐겨움으로 느끼게 되는 일이 많으며, 또한 스포오츠는 신체적 활동이 매개가되어 경쟁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바스켓트볼이나 배구 또는 축구, 농구와 같은 단체종목에 있어서는 團體精神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과 함께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양성하는 일이 그 대학의 발전과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은 이런 역사와 전통속에서 국가발전에 공헌한 바가 적지 않았다고 믿어도 무리 역사를 창조하는 과업에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었는가에 대해 재검토해야할 문제가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東國人 모두가 현장적으로 처해있는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래의 발전상을 예측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볼때 학문적인 수준이나 체육부문에 이르기까지우 기위해서는 우리 대학이 지니고 있는 資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일이 急先務라고 생각된다。

학문연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스포오츠에 있어서는 競爭에서 오는 드릴을 즐겨움으로 느끼게 되는 일이 많으며, 또한 스포오츠는 신체적 활동이 매개가되어 경쟁이라는 형식으로 전개되는 일이 많이 있어서 바스켓트볼이나 배구 또는 축구, 농구와 같은 단체종목에 있어서는 團體精神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따라서 지적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노력과 함께 우수선수를 선발하여 양성하는 일이 그 대학의 발전과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체육의 발전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스포오츠의 장점이 잘응용하여 보다 나은 사회성을 육성하는 기회가 많고 또한 효과와 더불어 적절한 정신을 함양함으로써 신체적 위생, 영양과 휴식등 제일반에 까지 관심이 주어져야 한다。 여기에다 교수들의 운동선수를 보는 觀角 또한 보다 친밀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이 선수, 감독자, 학교당국이 三位一體가 되어 추어진 여건과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시킬 때 東國의 體育은 한층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선수자신에도 적용관리나 특기를 발휘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지만 이들을 직접 관리하고 지도하는 책임자도 선수 못지않게 기술을 개발하고 상대방의 戰力을 분석 평가하며 또한 선수의 同化가 되어야만 한다。 부령의 선수가 자질있는 지도자일때 비로소 스타가 탄생되는 실례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감독과 선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수들의 복지후생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

원일에 관한 研究

老化의 原因에 관한 研究

「加齡」됨에 따라 서서히 죽어가는 組織體

尹柱億
〈고려대·食品化學〉

◇…… 人間이 기본욕망가운데생명의 보……◇
◇……존은 으뜸이라하겠다。人間이 生命……◇
◇……을 빼앗기는 데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老化 또한 그와관련이 깊……◇
◇……은것이다。결국 人間은 매일 조금……◇
◇……씩 죽어가는 것이라 할수있다。 ……◇
◇…… <편집자註> ……◇

成人의 여러 한평균 1%감퇴

高齡者는 중요조직의 機能細胞數가 감소

〈고려대·食品化學〉 尹柱億

I

나이가 많아지면 어떻게 누구나 잘 알고 있다。 白髮이 되고 關節은 굳어지며, 뼈는 약해지고 주름투성이에 老視가 오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나이가 많아지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老化現象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노령의 과로를 들어내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 이 老化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歷氣機에 매달리는 것과 같은 것일까。 老化에서 벗어날수 있는 妙法이 할으로 있을까? 그 해답은 이장 (加齡) 의수수께끼 같속히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여러분 부터 시작해야겠다。

II

사람은 오랜 時間 서서히 노화되어 가지만 그것이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직 잘 모른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현재과학으로는 아직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에이징의 영향은 너무나 많아 한가지 요인으로는 설명할 수 없으며, 노화현상 하나 하나가 에이징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老化에는 個人差가 많을 뿐 더러 病으로 부터 오는 影響도 被하게 영향을 준다。 말하면 사람은 老化로 죽기보다는 오히려 病으로 죽게된다。 다만 많은 병은 일류가 오랜 옛부터 추구해온 行性 疾患이다。 老化와 발맞추어 進 뭔따름이다。

研究對象으로 擇한 사람들과 10年間 緊密한 接觸을 가지며 協力的인 關係를 유지해 가야 한것이다。 이렇게 긴 歲月 研究하다가는 研究者 自身도 되어버릴 것이므로 사람 代身 養命이 아주 짧은 動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사람의 에이징 모델로는 適當치 못하다。 마우스나 랫트를 사용한다는 것이 動物은 約3年間이나 살 수 있다。

그래서도 實驗期間이 너무 길어진 것을 위한 時間節約이나 高額에 充當하여 放射線이나 動物을 이장을 촉진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正常的인 에이징의 단순한 高速化라고 自信있게 말할수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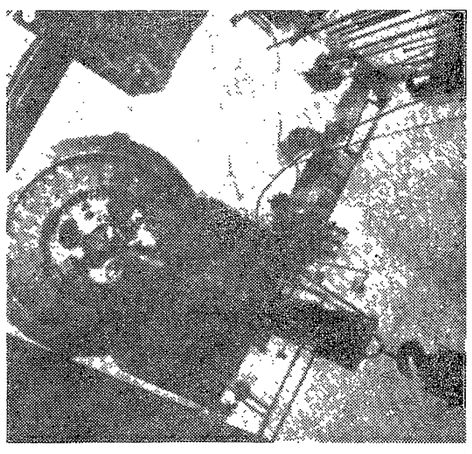
이와같이 어려운 問題들이 많다。 反面 이런 理由로해서여이장의 現象에 대하여는 많은 說들이 紛紛하고 그중 代表的인 說에 하나는 生體內에서 過酸化脂質 發現機構의 「에러」가 서서히 축적되어 이것이 修復되나, 거의 복원을 안하는 세포는 점점 減少되어 간다고 하는 假說이다。 쉽게 말하면 이 假說은 물질수록 그 影響을 더 클 것이다。

다섯째 假說은 免疫系에서 原因을 찾는 것이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免疫系는 外部로부터의 侵入者 (病原體) 를 물리치는 機能이 低下하여 感染에 대한 抵抗力이 弱해진다。 우리들을 攻擊하는 自己免疫病 (류마치스의 비슷한 關節炎등) 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섯째 假說은 遺傳子 (DNA) 의 손상이 에이징의 原因이된다는 것이다。 遺傳子의 손상이 축적되어 이것이 修復되나, 거의 복원을 안하는 세포내에서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세포는 자기수복이 가능하긴 하지만, 언젠가는 그 수복기구자체가 修復을 요하는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에러」는 더욱 급속도로 축적된다。 세포의 「기능정지에 수반하여心筋이나그밖의筋肉、腎臟、腦 의 작용은 저하되어진다。

이 「에러」 說은 老化해감에따라 기는 증상을 잘 설명해 준다。 그등 안의 많은 단백질 研究에 따르면 현저한 변경형한 運動을 했을때의 산소消費量의 감소, 筋力의 저하, 신경지전전달의 지연, 共調機能의 不良, 論理的 관계들도 밝혀지고 있다。 세포는

中·蘇關係의 展望

「毛」死後에 先强大·後革命완수로 변경
蘇의 對세계戰略 핵심은 迂回革命戰略



中·蘇關係는 실질적 필요성을 공감하여 그동안의 냉전에서 타협의 時代로 전환해가고있다. <中共의 원자로>

이 일 훈 〈대학원 정치학〉

現實的必要에 따른 잠정적 協商

80年代 새로운東北亞정세유도

政治變動과 매스컴

격심한變動이 狀況에 순응요구

野黨性向의 言論界 자유당독재에항거

經濟建設의 전략手段으로 매스컴인정

Ⅱ. 韓國의 政治變動過程에서 볼 수 있는 매스컴의 特徵

Ⅲ. 結語

여러분의 성공은 대학시절에 쌓은 영어실력이 좌우합니다!

11월호 내용이 훨씬 알차고 새로와졌읍니다.

時事英語研究

주요기사
- 마르크스주의나 자본주의도 골동품이 되었다(The Coming Scientific Society)
- 미국은 유럽에서 손을 떼라! (Ending the American Protectorate of Europe)
- 결핍의 시대에 살아남는 자는 누구인가? (Morality in an Age of Scarcity)

특별취재 엉터리영어 추방 캠페인
올림픽韓國, 英文案內가 이래서야! (民俗村 편)

기획연재
- ○세련된 영어회화 표현법〈제1회〉 ○시사경제해설〈제1회〉
- ○현대 영미시 세계 ○세계명문대학 순례 ○스크린 영어교실
- ○박동현 교수의 과학수첩 ○실력이 부쩍 느는 관용어 해설 ○서반아어 강좌

『한국代表短篇』英譯 잔인한 都市

BOOK BONUS: SPACE

■ 해외논조/해외결작 만화선/時事新語 ■ 考試英語/무역영어강좌/Pop의 세계 ■ 내가 요즘 읽은 영어원서/실용 美 속어해설 ■ 英作文교실/Men & Ideas ■ TOEFL Test/나의 유학기 /英語街散策 ■ 시사용어/영어회화

映画台詞 아이러브쥬리엣

英語世界

긴급 입수: 美 대학가를 주름잡는 8권의 책
- 몸은 있으되 머리가 없는 현대인(Only Skin-Deep)
- 웃음으로 풀어본 관상학(Laughter: How It Reveals a Person's True Nature)
- 지성인은 이렇게 데이트를 해야 한다(Guide to First Date)

主要記事 사색과 명상: 자신감의 부족은 젊음을 범등케 한다 / 원자력 발전소는 21세기의 괴물/화장의 역사 / 이색 스포츠: 칠대 올리게 경주/현대인의 필수 에티켓

英語講座 TIME·Newsweek 英語硏究 / 생활에 응용되는 英語会話 / 암송으로 배우는 영어

映画台詞 로미오와 쥬리엣

時事英語研究 값 2,200원 / 英語世界 값 2,100원

(株)時事英語社

자세한 우리말 해설이 들어있어 영어회화를 쉽게 배울 수 있읍니다.

New Horizons in ENGLISH 카셋트

Mellgren/Walker共著 미국 Addison-Wesley社 原刊

American Idiom의 양념이 많이 쉬인 영어회화를 공부하고 싶은 분은 이 카셋트를 사용해 보십시오. 특히 이 교재는 Young Adults(젊은 청년 남녀)를 대상으로 하여, 군살 없는 간결한 표현으로 참신한 화제를 통해 생생한 구어의 구사력을 익히게 합니다.

- 「젊은 대화」 중심이어서 외우기 쉽고 활용하기 쉬운 것이 이 교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 미국식 영어다운 Idiom을 많이 익히게 하는 것도 이 교재의 남다른 특색입니다.
- 친절하고 자세한 우리말 해설이 들어있어 쉽게 영어회화를 배울 수 있게 했읍니다.
- 젊은층에게 어울리는 화제와 상황이 학습을 즐겁고 보람있게 합니다.
- 나선식 계단(Spiral)을 올라가듯 진도에 따라 복습이 자동적으로 되게 함으로써 학습효과가 뛰어납니다.

4S方式의 독특한 특색
- Short Sentences (짧은 口語표현)
- Simple to Learn (익히기 쉬운 학습)
- Speedy Progress (빠른 학습성취)
- Spiral Approach (지동 복습 방식)

全帙: Text 6권/주해서 6권/ 카셋트 30개 값 150,000원

주문전화: 서울(720)6828 (269)8823 (722)9761 (725)5064 부산(43)3007 대구 (45)8890 대전(26)7176 광주(2)2376 전주(2)5328 인천(2)4122 수원(6)1478

(株)時事英語社

言論자유의 法的 현실

현대언론이 당면한 문제들

韓相範 〈성균관대교수·헌법학〉

사상표명의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는 합리적로 말해서 비판의 자유이다。 찬성·지지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이 보장되는 것이 당연하다。 비판을 열망하는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언론의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할수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인용할 것도없이 지극히 적다고 하는 것을 알수있다。 이점부터 인식을 달리하여 출발점을 이 일반에게 보편적에 따라 언론을 제한하는 이유는 종교상으로는 신의문제이나 이단이고 정치상으로는 치안을 위한 국가안전이고 정치상으로는 사회윤리이며 개인의 명예나 권리에대한 훼해등이었다。 지금은 신에대한 모독행위나 이단이라고 하는 종교상의 이유로 언론에대한 처벌이나 제한을 부과하는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아니하지만, 정치상의 이유보나 사회윤리나 권리침해등의 이유로 언론을 제한하는것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는 정하고있다。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절해져있다고해서 곧 그것이 앤면그대로의 보장이나하면 물론 그렇지 않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있다。 다음에 언론은 이전에는 주로 표현하는 주체측에서 제한을 받았으나한다고 하는점에 자유의 뜻이있었다。 지금도 이점은 마찬가지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상상·정보에 자유롭게 접할수있는 정보접근권 또는 알권리가 문제가되고있다。 정보사장이 독점화된 기업의해 장악되고 또 국민의 공유재산인정보가 정부에의해서 관장됨때에 국민은 알권리 또는 정보에 접할수있는권리는 많이 중요한것이되고있다。 현대 사회를 정보화사회라고 하지만, 이 사회의정보산업이 막중한 공적인 기능을 지니면서도 사기업으로서 영위되고있고 또한 편으로 정부가 관장하는 점보도 그양 과점이 이전해는 산상조차 확수없었던 것으로 되고있다。

한편으로 나아가서 정보 산업으로서는 언론기관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분제를 따져보아야 한다。 우선 언론기업의 언론시장 독점이 일찍부터 주목되어 오고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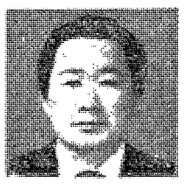
言論자유의 法的 현실

言論社 시설기준법규…실질적 許可制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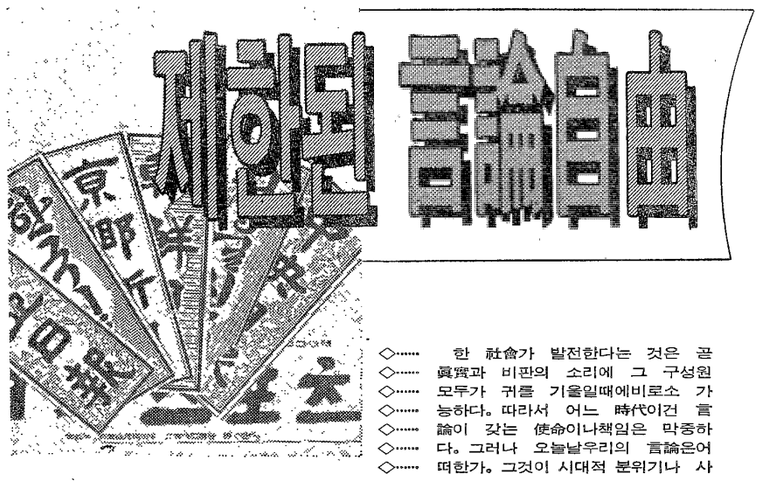
현실적 情報公開제도 모색해야

流言蜚語적 정보풍토 극복위해 「眞實」알리는것이 급선무

韓相範 〈성균관대교수·헌법학〉



그런데 문제는 신문통신등의 발행시설기준을 미리 법률로정하여 (언론기본법 제21조) 그에 달하게 시설을갖춘 경우에만 언론사업에서 활동할수있게 제한을 두고 있는것이다。 이법리 시설기준에 위반하거나 그밖의 원적문란 이란 언론기본법 제9조4항에 여러나면 등록을 취소할수 있게하고있다。 여기서부터보면 문제가된시설은 작은 자본등갖춘 영세 언론기업으로서는 언론·정보시장에서 탈락됨을 할수없게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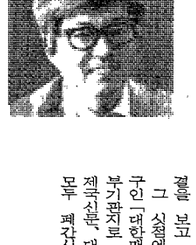
◇…… 한 社會가 발전한다는 것은 곧
◇…… 眞實과 비판의 소리에 그 구성원
◇…… 모두가 귀를 기울일때에비로소 가
◇…… 능하다。따라서 어느 時代이건 言
◇…… 論이 갖는 使命이나책임은 막중하
◇…… 다。그러나 오늘날우리의 言論은어
◇…… 떠한가。그것이 시대적 분위기나 사

언론의 發展과 試鍊

국민意志와 부합 4月革命이뤄

南北分斷현실앞에 바람직한 발전어려워

언론은 大衆과統治權力이 함께만드는것



孔 鐘 源
〈中央日報 논설위원〉

柳光烈의 「朝鮮五十年史」에는 갑오경장 한달목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1892년에 그가 봉직하던 신문사에서 1년이상 밀렸던 월급을 받아 여비를 차렸을때 여관 주인노파가 기뻐하면서 그동안 여관비를 재촉하지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선생님은 월급을 못받고도 나라일을 하는데 밥값을 어떻게 재촉할 수 있겠읍니까』하는 노파의 말엔 갑꼬하고 지극한 정이 배어있다。

우선 그당시 당시 우리민족 일반의 항일된 의식과 일치된 감정이 나타나 있다。나라일은 민족이 나라를 다시찾고자하는 소망과 열의가 똘아 민족전체에 보편적이었음을 알수 있다。

지식계층은 물론 시정의 아낙네마저도 나라사랑의 걱정에 부풀하였다는 뜻이다。

뿐만아니라 言論에 종사하는 「記者」가 스스로 월급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이고 일반대중도 그것을 「나랏일」로 인정하고 이해하였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와같은 당시의 상황은 「國權」 을잃고있는 나라의 객관적 처지라는 면에서 본면 不幸한 여건이 분명하지만국민의 일체화와 언론사업에대한 이해, 지식계층의 보편적 관심과 열의가 뒷받침되어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제의 제국주의 식민정책이 강화되고 식민언론의 마찰과 갈등속에 부침하였다。

1908년 統監府가 신문지법을 공포하여 언론탄압을 강화하였다。

1910년 國權을 강탈한 일제는 식민지 지배의 효과적 수단으로 언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론기관을 통폐합하였다。

그것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 이라는 「강제조약」 이 체결되기 직전에 이루어진 「신문지법」 의 공포였다。

이 법은 언론탄압정책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인 출판사업을 거의 폐업시키는 것이었다。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라는 「漢城旬報」 가 관보로서 출발한 이래 1936년엔 민족독립의지를 대변한 「독립신문」 과 일제식민지배를 대변한 「한성신보(漢城新報)」가 발행된 것이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 이 체결되기까지 약 26년간 우리나라에는 무려 150여종의 신문이 명멸하였다。

그러나 이들 신문들은 대부분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폐간되었으며 그런 탄압에서 정책도 훨씬 강화되었다。

1910년대의 일제의 언론정책은 「武斷政治」 라는 말로 대표되는 것이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종래의 무단정치에서 소위 「文化政治」 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무단정치의 본질과 「文化政治」로 전환하였다는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된다。「文化政治」 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언론의 기능을 고도로 교묘하게 탄압하는 식민지배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무단정치의 본질과 「文化政治」로 전환하였다는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된다。「文化政治」 라는 아름다운 이름과 달리 언론의 기능을 고도로 교묘하게 탄압하는 식민지배의 수단에 불과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20년 4월 1일 창간된 「東亞日報」 와 「朝鮮日報」 의 발행허가였다。

이 두 신문은 3·1운동의 민족적 열기를 배경으로 창간되었으며 창간사에서 「文化政治」 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민족의 실력양성을 통한 민족문화의 발전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이 두 신문을 통하여 민족의 실력양성이 곧 민족독립의 준비과정이 될 것을 우려하여 이 두 신문에 대하여 가혹한 탄압을 가하였다。

1920년 8월 「東亞日報」 가 「朝鮮日報」 보다 하루 앞서 1천부를 증간하여 배포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 「東亞日報」 는 무기정간 4개월, 「朝鮮日報」 는 무기정간 4개월, 압수 4백90회, 삭제 2천4백23회이며 「朝鮮日報」 는 무기정간 4개월, 압수 4백14회, 「時代日報」가 무기정간 1개월, 압수 2백57회에 이르렀던 것을 기록하고 있다。

「參考新聞差押記事題錄」에서 본 조선총독부의 언론탄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통계는 다음과 같다。

구분	정간	압수	삭제	계
1920	4	90	2,434	2,528
1921	1	63	1,127	1,191
1922	1	17	1,088	1,106
1923	1	8	1,127	1,136
1924	1	14	1,127	1,142
1925	1	20	1,127	1,148
1926	1	9	1,127	1,137
1927	1	20	1,127	1,148
1928	1	9	1,127	1,137
1929	1	20	1,127	1,148
1930	1	9	1,127	1,137
1931	1	20	1,127	1,148

1931년 이른바 「滿洲事變」이후 한국은 일제의 大陸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가 강행되었으며 그런 발악에서 정책도 훨씬 강화되었다。

식민지시대도 어느정도 안정기에 들어선 이시기에 일제는 농어촌의 진흥, 自力更生운동, 내선일체를 슬로건을 내세우며 이른바 內鮮一體, 皇國臣民化로 한국인의 「황국신민」 화를 강요하였다。

1936년 8월 「東亞日報」 가 일장기말소사건을 보도하였다가 무기정간 9개월, 「朝鮮中央日報」 가 폐간되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한국을 대륙침략의 병참기지로 삼기 위하여 한국인의 민족의식을 말살하기 위한 황국신민화 정책을 강행하였다。

1938년 2월 「東亞日報」 가 폐간되었으며 1940년 8월 「朝鮮日報」 가 폐간되었다。

1940년 8월 「東亞日報」 와 「朝鮮日報」 가 폐간되었을 때 남아있던 한국인 신문은 「每日新報」 와 「京城日報」 뿐이었다。

「每日新報」 는 1904년 7월 18일 일본인 「배설」 이 창간한 일본인 신문이었으며 「京城日報」 는 1906년 8월 일본인 「하야시」 가 창간한 일본인 신문이었다。

1941년 12월 8일 태평양전쟁이 일어나자 일제는 한국의 모든 신문을 폐간하였다。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하였다。

해방후 한국의 언론은 미군정하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그러나 미군정하의 언론은 일제하의 언론과 마찬가지로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으며 1948년 9월 22일 「국가보안법」 이 제정되었다。

1949년 12월 19일 「반민족행위처벌법」 이 폐기되었다。

1950년 6·25동란이 일어나자 언론은 다시 탄압을 받게 되었다。

1950년 6월 28일 서울이 함락되자 「朝鮮日報」 「東亞日報」 「京鄉新聞」 「서울신문」 「每日新報」 「大東新聞」 「大韓日報」 「自由新聞」 「新天地」 「民主日報」 「國都新聞」 「新國民日報」 「平和日報」 「新朝鮮日報」 「中央新聞」 「朝鮮中央

우리 古典의 文學性

▲우리는 과거 우리의 古典 연구를 양적 팽창에만 급급해 자료발굴, 주석등에만 연연해왔다.

論壇

파스칼의 燕巖에 대한 소리系小說, 지배풍에의 불만이 주류 量的팽창에만 급급했던 國文學研究태도 탈피돼야 民族文學(古典)의 문학성을 추구해 본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것 이다。(그러데 우리가 우리 文學을 가지게 된것이 근세에 들어서의 일이므로 口傳文學인 민요나 說話, 전설들도 이런 방향의 연구에 천착하여야 할 것이다。

〈문리대 국문과〉 임 동 욱

古典이란 일반적으로 여러 世代의 試練을 거쳐 꾸준히 읽혀지고 앞으로도 읽혀질 가치가있는 作品을 말한다。그것은 비단 文學面에만 局限된 것이 아니라 人間의 회한을 顯在的으로 또는 潛在的으로 表現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藝術을 통틀어 일컫는 것이다。따라서 고전이라면 그것이 지켜온 諸時代의 다양한 思想들부터 내포할수 있는 것이라야 했고 또 그러하였다。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고전을 얻어야하고 알아고있는 이유인 것이다。

이런 觀點으로 우리의 古典을 보았을 때 槪念設定上 애매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古典이라함이 時間의 經過속에서 살아남은 作品을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어느 時代 누구에게나 共感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그것은 곧文學作品의 生命인 文學性이 있다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古典이그런 意味로서보다는 祖上이 남겨준 一切의 遺産을 總稱한 意味가 더 큰 것이다。그리고 그러한 古典속에서 時代에 따라間斷없이 이어진 우리의 共感帶가 달겨있는가하는 점에도 自信이없다。朝鮮後期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지도 文學을 포함한 대부분의 學問이 支配層의 獨占物이었고 儒敎的 理念에 틀들어 진 정한 人間美와 民族情緖의 發露보다는 形式的 敬禮主義에 心醉하였던 그들이 온전한 傳統精神이 담긴 作品을 얼마나 鑑賞하게 썼겠는가?이런 가름으로 現在 古典이라고 불리는 作品의상당량이 眞情한 意味의 古典의世界에서 除外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古典이라고 부르는 많은 作品이 분명히 民族의 성장과 함께 呼吸해 왔고 우리의 傳統精神과 민족정서 더 나아가 人間性의 본질을 간직해 온 것도 사실이다。이런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古典이라 할수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民族文學(古典)의 문학성을 추구해 본다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것 이다。(그러데 우리가 우리 文學을 가지게 된것이 근세에 들어서의 일이므로 口傳文學인 민요나 說話, 전설들도 이런 방향의 연구에 천착하여야 할 것이다。

더우기 高麗시대의 「서경별곡」「西京別曲」「鄭石歌」에 나타난 헤어짐의 아픔과 恨, 「思美人曲」의 「動動」의 生活事, 「翰林別曲」의 主題과 文體과실은 多樣한 主題를 모두 흑륭한 솜씨로 다뤄 한국의 詩歌史같은 文學史上의 作品을 꽃피워놨던 것이다。

朝鮮에 들어서자 世宗대에 우리文字인 한글이 頒布되고 民族의 意識水準도 急速히 向上되면서 文學이나 藝術方面에 대한 參與層가 확대되어 四色 폭넓은民族의 共感帶가 形成되었다。그리하여 自己思想(또는 感情)의 表現이 수월해졌고 以前時代까지는 우리 文字가 없어 소설하기 쉬웠던 作品로 잘 묘사되었던 만큼 俗性이 豊富해졌다。그러데 時調나 가사, 歌辭에는 이런 特徵이 없었다。時調는 高麗朝에 이미 萌芽하여 朝鮮前期에

"대원군의 治績은 유죄였다"

史友會「역사 인물법정」에서

응징된 歷史觀 기존 大院君、상황인식 부족한 政客

지난 29일 史友會에서 실시한 「歷史人物法廷」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현재적 조명이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하겠다。지금까지 웅장한 觀衆으로 열광되었던 구한말의 정치가 大院君에 대해 색다른 평가를 내림으로서 기존의 이들뿐 역사관에 충격을 가하며 그 재평을 실제해보일 大法廷이 구본동 대학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9일 史友會에서 실시한 「歷史人物法廷」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현재적 조명이란 면에서 바람직하다고하겠다。지금까지 웅장한 觀衆으로 열광되었던 구한말의 정치가 大院君에 대해 색다른 평가를 내림으로서 기존의 이들뿐 역사관에 충격을 가하며 그 재평을 실제해보일 大法廷이 구본동 대학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제2회 역사인물법정」 - 應召도국수를 비롯한 10명의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이 상우회 주최로 지난달 28일 오후 4시부터 후문 앞 한림관 수강실에서 있었다。

이번 법정에서 권상술은 『현재도 있어 이에 대원군회진 편목을 폭파하여하며 기속하다고 기소이유를 밝히면서 『비현대적 쇄국정책으로 일관하여 많은 어려움을 몰소 겪은 대원군은 무죄 판결을 주장하여 법전통의 색을 알았다。

변호인측은 『대원군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대원군과 일본 등 시해한 단지로 이 결탁한것이라고 주장하 지로서 결코 있을수 없는 것이다。

검사측의 계속된 논고는 『역사는 흐자 이부 그것이 아니라 민중이 이부 그것』이라는 전제를 『홍선 대원군에게 『홍』을 부여하고, 이후 현재와 미래의 정치가들에 대해 치세의 경종이 되도록 엄중히 그를 한국정치사에서 추방하고 조선시대 최고의 형벌인 부관참시를 구형』하였던데 법정안목은 최후 변론에 『19세기 전반의 위기를 맞은 기간에 단 한사람의 힘으로는 수습키 힘들다란 점이건 그들을 무조건 어리석은 자로 매도하는 것은 과감하고 혁신적인 선각적 개혁정치를 통하여 민족적위기를 구한 그 시대에 보기를는 능력있는 정치가였다고 변론을 폈다。이에 대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홍선대원군의 지도자로서의 당시 현실인식이 불충분했다는 사실과 그가 민족을 계몽하지 못하고 함께으로 민중을 기만하였다는 큰 소의 사실을 인정하여 사우회 『역사인물재판법』 445에 의거5년4개월간 폭전 대원군 이하응 피고인을 부관참시한 판결을 박탈하고 이 사실을 통고한 국정교과서에만 실보복 선고 하였다。한편 예정하였던 셀프조사는 학교의 저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사진 - 대학가에서도 진행되고 있다。이것이오늘날 역사속의 인물에대한 현물법적조명경>

經大院 체육대회

8日, 축구등 5종목서 기량겨뤄

經營大學院에서는 오는6일 「벚꽃대학 체육대회」와 8일 교수체마나실에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경영대학원 재학생회가 주최, 동문이 참가하여 6일 오전9시 잔디운동장에서 실시되는 체육대회는 축구·철구·육상·줄다리기 등의 종목을 경주하게되는데 종목별1·2·3등학생에게 원고상을 수여하며 시상품으로 학생회에서 준비한다。한편 8일 오후6시30분 교수마나실에서 갖게되는 특강은 「일부 대해선 불확실성의 두려움」이 연제로 김만흠 교수(정치학과)가 강연하게 된다。

師範大學 학술경진대회

오는19일 學林館 소강당서

사범대학에서는 제7회 사범대학 학술경진대회 원고 모집을 오는10일까지 마감하고 이번 학술대회 원고로는 총 50여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사범대학 학술경진대회 원고는 교육학과, 국제학과, 물리과, 화학과, 불교학과, 농업생물학과, 체육과, 가정학과, 국문학과, 영어교육과, 독문학과, 불문학과, 사회학과, 역사교육과, 지리학과, 윤리학과,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체육교육과, 가정교육과, 교육학과 등 총 23개 학과에서 제출되었다。

심사위원은 각 소속학과에 관한 학술에 경력있고 공부할수있게 하는 선배들의 마음이 여러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그러나 많은이 해야할 일인데도 하지않는것이 상례이고 쫓쫓만 하고, 자기 살 길만 찾으려는 것이 지배적인 현실에서 그러데로 뜨끔을 위하고 후배를 위해 크고 작은 誠金을 모아 장학금을 마련하고 있는 선배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학과에서도 학과장학기금 마련에 보다 관심을 갖고 간접적이나마 모금을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경상대 법학과의 경우처럼 학과의 발전을 추구하는 학과에서는 앞의 장학금 지급과는 다른 학과발전과 학과생 복지를 위한 장학금 지급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학과장학금 현황을 보면 현재 9개 학과에서 장학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학과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라고 한다。

주는 말할것도 없이 학과장학금 지급을 위해 학과장학금 모금을 시작한것은 1978년 사범대학과 농업생물학과가 처음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 경영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불교학과 등 4개학과에서 장학기금을 모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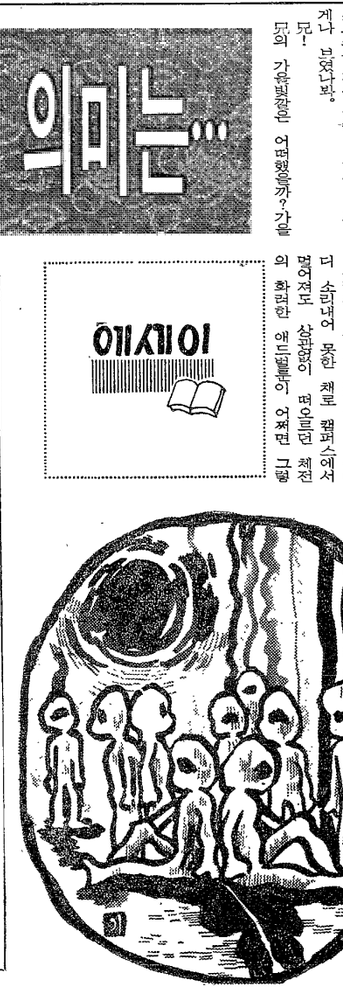
학과장학금 모금은 학과에 따라 학술활동의 지원부족에 있기도 하나 학과장의 열의 부족에 있기도 하다。

특히 경상대 법학과의 경우처럼 학과장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으면 학과장학금 모금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학과장학금 모금은 학과장의 열의

이 가을의 의미는…

에세이



돌이 모여 대화도, 셋이 모여 노래도 저지 당해야 했고 승리와 패배의 눈물을 미처 맛보기도 전에 분노의 물을 흘려야했던 現實이 바로 우리 모두의 운명인거야

任泰淑 〈師範大 家政科〉

모!

가을이란 나뭇잎이 온통 유난히도 찬란하여 그래서 철 늦은듯도 스모스의 작은 물결이 더욱 애처럽게나 느껴졌니.

모!

모의 가을빛깔은 어떠했을까? 가을의 계절에서 그연장을 고등학교생활이 그리고 나의 초라함이 가을을 잔인하게도 앗아가는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였던지.

여쭈면 가을의 부담감으로 비롯거였는지도 모르겠네.

나는, 형! 가을이 결별보다 얼룩진 추억을 짜증스러웠어. 선물에게 부관심한 우리들의 메마름이, 어느가 비롯어진 상처를 기억하게도 하는 가을이 있었기에.

모!